

# “요즘은 짜장면 그릇 씻어서 반납합니다”



## 최근 종영 '최강 배달꾼' 고경표 첫 단독 주연 드라마 호평에 감사

“음식 배달하는 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짜장면을 시켜먹은 후에 그릇을 꼭 씻어서 내놓게 됐어요.”

‘건강한 청춘극’으로 호평받으며 종영한 KBS 2TV 금토극 ‘최강 배달꾼’에서 주인공이자 떠돌이 배달부 최강수를 연기한 배우 고경표(27)를 최근 서울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고경표는 강수를 연기하면서 배달부들의 힘든 일상이 더 잘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그릇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넣어놓기도 하고, 아기 기저귀를 같이 버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며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고경표는 드라마가 호평받은 이유에 대해 “시대가 가진 청춘의 아픔을 다루면서도 만화 같은 연출로 용기를 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말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어릴 때 만화책을 보던 것처럼 맘 편히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는 고경표의 첫 단독 주연작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로 인해 사람들이 힘을 낼 수도, 힘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현장에 더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임감이 저를 실제로 강수처럼 오지않아 넘어지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웃음)” 그는 그러면서 “제가 해보지 못했던 캐릭터여서 도전 의식에 불타기도 했고, 또 오랜만에 제 동료들과 연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동료 배우들이 오히려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강수 캐릭터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험기왕성하고 ‘돌아이’ 같은 기질을 가진 청년이지만 친구들과 사업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에 포인트를 두고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어린 나이에 데뷔했으나 ‘흙수저’ 캐릭터에 몰입하기 어렵지 않았다는 물음에는 “저도 어릴 때 밀짚 독립했는데 돈이 없어서 물만 끓여 마신 적도 있고, 고시원에서 계란만 먹으며 지낸 적도 있다”며 “그들이 겪은 고충을 충분히 겪었기에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기했다”고 답했다.

고경표는 ‘강단’(강수-단아) 커플로 함께 사랑받은 채수빈에 대해서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쿵쿵쿵할 만큼 예쁘고 성실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우다. 앞으로도 행보에 꾸준히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애정을 표했다.

고경표는 2010년 드라마 ‘정글피쉬’로 데뷔해 영화 ‘무서운 이야기’(2013), ‘하이힐’(2014), ‘명량’(2014), ‘워킹 걸’(2015), ‘차이나타운’(2015), ‘간신’(2015) 등과 드라마 ‘프로포즈 대작전’(2012), ‘응답하라 1988’(2015~2016), ‘질투의 화신’(2016), ‘시카고 타자기’(2017) 등에 출연했다.

그는 “연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나오니 힘들었던 것보다는 좋은 것만 생각이 난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작품을 하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만 스텝일곱이나 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고경표는 이에 대해서도 특유의 긍정을 잃지 않았다.

“친구들이 너는 군대 가도 잘할 것 같다고 해요. 남들도 다 가는 거니까 크게 불안한 것도 없어요. 전 분명히 거기서도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을 거예요. 때 되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 비슷한 듯 다른 중앙아시아 유산을 만나다

### EBS 특집다큐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방영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비슷한 듯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찾아온다.

EBS TV는 특집다큐 3부작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를 28일과 다음달 12일, 19일 밤 11시35분에 방송한다.

EBS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다큐도 그 일환으로 제작됐다.

1부 ‘이스파라의 봄’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12개 나라가 즐기는 봄의 축제이자 ‘새로운 날’(new day, 설날)을 의미하는 ‘나브루즈’의 모습을 담는다. 타지키스탄 이스파라 역에 사는 소녀의 눈으로 나브루즈를 소개한다.

2부 ‘노래하라, 삶을 노래하라’는 50만명이 넘는 인류 최대의 영웅서사시인 키르기스인의 3부작 서사시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의 전통음악과 구전 서사를 조명한다.

3부 ‘유목, 천년의 지혜’는 유목문화권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목동들의 삶을 소개한다. 양의 털로 만든 펠트, 양모로 만든 이동집 유르트 제작에 관한 전통지식 등 유목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만나본다.

# “빌보드 ‘핫100’ 진입 어릴적 꿈, 감개무량”

## 방탄소년단 타이틀곡 ‘디엔에이’

###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85위 기록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신보 ‘러브 유어셀프 승-헤’(LOVE YOURSELF 承-Her)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7위를, 타이틀곡 ‘디엔에이’(DNA)는 메인 싱

글 차트인 ‘빌보드 핫100’ 85위를 기록했다.

뷔(본명 김태형·22)는 “그동안 주위에서 목표를 물어보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빌보드 핫100 차트에 들고 싶다고 했었다”며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다.

리더 램몬스터(본명 김남준·23)는 “한국어로 된 노래여서 더 뿌듯하다”고 했고, 제이홉(본명 정호석·23)은 “그 유명한 차트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 게 믿기지 않는다. 꿈인지 생사인지 모르겠다”고 거듭했다.

진(본명 김석진·25)은 “음악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야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슈가(본명 민윤

기·24)는 “어릴 적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정국(본명 정정국·20)은 “이렇게 순위에 든 만큼 목표가 더 커지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민(본명 박지민·22) 역시 “아무나 들 어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충격적이다. 팬들이 선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거의 모든 가사가 한국어인 노래가 빌보드 ‘핫100’에 오른 것은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DNA’가 두 번째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재)	00 TV스셜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50 다큐멘터리 3일(재)	50 병원선(재)	00 건국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	30 팔도방송(재)	50 VJ 특공대(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행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55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MBC 정오뉴스 2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중흥 S-클래스 교고동문 고품과대회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45 생생정보 스페셜	10 MBC 나눔 특집 임마의 가을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텔레몬스터 55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50 감성톤 고맙습니다 2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25 뽀글아 사랑해(재) 55 령킹쇼 1, 2, 3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방송 스페셜 40 남도스페셜	00 토이칸 15 티타임카드 W 2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내 남자의 비밀(재) 30 2TV 생생정보	10 빛날 스페셜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 7 35 한국인의 밤상	50 내 남자의 비밀	05 천년의 전라도 15 동양산 보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임마의 소개팅	35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해를 품은 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 9 40 KBS 스페셜 <김정은의 두 얼굴>		05 허골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맛의 귀로)				
10	35 KBS 뉴스라인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5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1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부	10 MBC 스페셜 (커피에 미치다)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00 월요기획 바다, 황금벌이 되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8일(음 8월 9일 戊午)	
子	48년생 깊이 개인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60년생 맑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72년생 자기 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84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0, 43	午	42년생 정성과 솜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54년생 우회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6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78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90년생 다들어서 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5, 98
丑	49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61년생 신은 결코 행동을 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73년생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85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반복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행운의 숫자 : 41, 87	未	43년생 분주해졌다. 55년생 한 번 나타난 절정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하면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79년생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91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29, 24
寅	50년생 불합리함을 차차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세로다. 62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74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86년생 적합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0, 26	申	44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응동을 부리는 것이 맞다. 56년생 한 템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68년생 확장시킴이 낫다는 것보다는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80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5, 50
卯	51년생 농부가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 63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75년생 목표를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87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반드시 호전될 것이니 실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7, 53	酉	45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57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두는 입장이 될 것이니 수고로움을 감내하라. 69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던 문제가 있도다. 81년생 길질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7, 36
辰	52년생 오늘은 지치하면 마가 끼기 쉬운 날이니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정된다. 64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76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되어 버릴까 두렵다. 88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9, 86	戌	46년생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겠다. 58년생 성취의 교두보를 설정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70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 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82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행운의 숫자 : 70, 30
巳	53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니만큼 지구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65년생 걸보기만 그럴싸하게 보일 뿐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77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89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을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37, 07	亥	47년생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59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71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83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라. 행운의 숫자 : 40, 23